



2011 북아프리카의 민주화와 1960 한국의 4·19 혁명

글 ·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tgpark3@gmail.com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심상치 않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민주화를 이끌어냈고, 리비아에서는 내전으로, 예멘에서는 비상사태 선포로 이어지고 있다. 리비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개입으로 인해 앞으로 민주화의 바람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일본 사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물결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중동에서의 민주화 바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시아와 동구권에서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던 1990년을 전후한 시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민주화를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복잡하게 얽힌 국제관계는 민주화의 진전을 어렵게 했다. 타이완의 민주화 문제가 독재와 민주주의의 관계 이외에 대륙과 타이완 사이의 분단 문제, 그리고 타이완에 거주하는 토착민 출신과 본토 출신 사이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처럼 이 지역 역시 갈등은 단순하지 않다.

1970년대와 80년대 동아시아 독재정권이 냉전체제에 따른 미국의 지원 문제와 얽혀 있었다면 중동, 아프리카의 권력은 석유 자원 문제와 맞물려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스라엘의 시오니즘과의 갈등, 이슬람 내부의 계파간 갈등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이집트의 경우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 등 종교 문제가 얽혀 있다.

또한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석유자본의 힘은 이 지역의 정치 권력이 미국에 대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가와 맞물리면서 복잡한 지형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씨줄과 날줄의 구조 속에 무바라크와 카다피에 의한 장기집권의 비밀이 있는 것이다.

민주화의 바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반 석유자본 민족주의, 반 시오니즘 민족주의 등이 독재자들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희망하는 일반 대중들의 바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독재 하에서 철저하게 정보가 통제되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세계화와 인터넷의 확산은 이제 아프리카와 중동의 일반 대중들에게 세계와 परि되어 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게 했다. 이는 1990년을 전후하여 구 소련과 동구권 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방 사회가 보여주는 자유로움의 실상이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무하마드 부아지지 그리고 김주열

튀니지와 이집트에 이은 아프리카, 중동에서의 민주화 물결은 한국의 4·19 혁명,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도 그 맥이 닿는다. 튀니지의 민주화는 무하마드 부아지지라는 한 청년의 분신 자살에서 시작되었다. 작년 12월 중순 분신한 이 청년은 대졸 실업자로 노점상을 하다가 분신 자살로 사회에 항거했다. 올해 1월 초 부아지지가 사망하자 시위는 튀니지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벤 알리 대통령의 망명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4·19혁명은 마산에서 있었던 소년 김주열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대구와 대전에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있

튀니지와 이집트에 이은 아프리카, 중동에서의 민주화 물결은 한국의 4·19 혁명,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도 그 맥이 닿는다.

비록 50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4·19혁명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바람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었지만 그의 죽음은 이승만 정부와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졌다.

이집트의 민주화 역시 한국과 유사한 점이 있다. 최근 이집트의 사회적 불안정은 천주교 교회에 대한 이슬람 과격파들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마치 민주화와 관련 없는 내부 시민사회의 갈등인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튀니지로 부터 불어온 민주화의 바람은 결국 이집트의 독재권력을 무너뜨렸다. 1980년 서울의 봄, 그리고 1985년 총선의 황색 바람과 1986년 개헌을 둘러싼 공방은 국내 정치 세력 사이의 이진투구처럼 보였다. 하지만 1986년 필리핀으로부터 불어온 민주화의 바람은 결국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개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87년 미국은 한국 독재권력의 유혈 진압을 반대했고 2011년 미국은 이집트 권력에 대한 경고에 이어 급기야 리비아에 군사개입을 시작했다. 1980년 광주 항쟁 시 미국의 태도에서 드러나듯이 미국의 개입이 기본적으로는 민주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방국에서의 사회 안정화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리비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민주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반미, 반서구 성향의 카다피에 대한 개입의 측면이 크다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최근 아프리카 중동에서의 민주화 바람은 한국에서의 민주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는 곧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험은 이들 국가에 어떤 교훈과 성찰을 줄 수 있을까?

한국, 필리핀의 민주화 경험

비록 50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4·19혁명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바람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무엇보다도 독재정부가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화가 바로 오는 것도 아니다.

4·19혁명 이후 혁명의 모든 성과물은 민주당에게 돌아갔다. 6·27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했다. 그러나 이전의 독재정부 못지않게 보수적이었던 민주당은 4·19혁명이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부정부패를 만들어냈던 재벌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졌고 오히려 이들 재벌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재벌 및 정치권력과 연결되었던 관료와 경찰, 부패 군인에 대한 개혁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정부는 혁명 과업의 달성을 요구하는 세력을 사회 불안정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억압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미국과의 문제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비록 1950년대를 통해 미국이 이승만 정부를 전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냉전체제 하의 분단 한국에서 미국은 이승만 정부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4·19혁명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미국이 요구했던 환율 인상, 공공요금 인상을 모두 들어주었고 급기야 불평등한 경제·행정 협정을 통해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결국 4·19혁명으로 조성된 열린 공간은 5·16 쿠데타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았다. 5·16 쿠데타 세력들이 초기에는 4·19혁명의 성과를 계승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현실과 부딪힌 그들은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았고 혁명의 모든 성과는 날아가고 말았다.



혁명 후의 개혁 과제 해결과 관련해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 1986년 민주화 혁명 이후의 필리핀 역시 중요한 교훈을 준다. 1986년과 1987년 필리핀과 한국에서의 항쟁이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에 의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혁명 성과는 고스란히 기득권 세력에게 돌아갔다. 특히 한국에서는 민주화 항쟁에 참여했던 정치인들의 분열로 인해 독재자의 친구가 다시 정권을 이어받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개혁 과제는 5년 이후로 밀리게 되었고 급기야 2000년 이후에 가서도 민주화 이후 개혁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었다. 필리핀의 경우 민주화에 참여한 정치인이 정권을 장악했지만 농장에 기반한 기득권 정치인들의 힘은 민주화를 위한 개혁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했다.

필리핀과 한국에서의 항쟁이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에 의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혁명 성과는 고스란히 기득권 세력에게 돌아갔다.

민주화든 혁명이든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경우는 없다. 민주화와 혁명은 그 이후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혁명 그 이후

이런 한국과 필리핀의 경험은 아프리카, 중동의 민주화 바람과 개혁 과정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민주화의 힘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특별한 혁명 주도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개혁 그룹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즉 혁명 이후 이니셔티브를 잡고 개혁을 주도해 나갈 정치세력이 부재한 것이다.

한국, 필리핀과 유사한 이러한 현상은 결국 민주화 이후 또 다시 기득권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주화가 된 이후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개혁을 위한 특별한 움직임에 대한 뉴스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도 과거 한국, 필리핀과 같은 상황이 이 지역에서도 또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민주화든 혁명이든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경우는 없다. 민주화와 혁명은 그 이후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성과를 어떻게 개혁으로 연결시키느냐가 혁명의 성패를 좌우한다. 4·19 혁명을 '실패한 혁명'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혁명 역시 혁명의 초기에는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후 집권한 독재자들은 대중들이 혁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했다. 이는 혁명 이후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동구 유럽의 민주화 역시 혁명 이후 과정의 불철저함이 현재 그 지역 시민들의 불만과 사회적 불안 및 경제적 정체로 표출되고 있다.

오늘 중동, 아프리카의 민주화 바람이 한국이 민주화 과정에서 겪었던 전철을 밟지 않고 보다 자유롭고 밝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대한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제~~